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예능 ‘슈팅스타’ 시즌 2, 바닥까지 떨어졌다! 최용수-설기현 불협화음 대위기! 불가능한 도전은 여기까지?!

2025. 10. 12.

2025 레전드리그 5R
슈팅스타 13 고요한
05:57
결코
고요하지 않은 그라운드 위 불도저

또다시 오가는 언쟁

쿠팡플레이 예능 <슈팅스타> 시즌 2는 **은퇴 후 제대로 진짜 축구를 즐길 줄 알게 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K3리그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.**

7화에서는 2022년 K3리그 우승팀이자 떠오르는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'창원FC'와 맞붙은 5R 경기가 담겨 눈길을 사로잡았다. '창원FC'는 동양인 최초로 레알 마드리드 유스 입단, 프로 리그 출신, 브라질 용병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젊고 간절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어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. 여기에 상대팀의 수장은 과거 최용수 감독과 'FC서울'에서 코칭스태프로 호흡을 맞췄던 이용진 감독으로, 양 팀 지도자 간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.

첫 승을 향한 갈망과 함께 시작된 5R 경기에서 'FC슈팅스타'는 전반전 노련미와 투혼으로 향상된 경기력을 입증하며, 현영민의 롱스로인이 고요한의 감각적인 선제골로 이어져 1 대 0 리드를 잡았다. 그러나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'창원FC'의 대대적인 교체로 강화된 공격에 밀리며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달아 허용했고, 이에 따라 'FC슈팅스타'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흔들렸다.

수비 실책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겹치면서 선수들 간 작은 오해가 언쟁으로 번졌고, 평소 끈끈했던 팀워크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. 설상가상으로 최용수 감독과 설기현 수석 코치 간의 의견 충돌까지 겹치며 벤치 분위기마저 냉각되었고, 결국 'FC슈팅스타'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2 대 1로 역전패를 당했다.

경기 종료 후 라커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. 최용수 감독은 "패배는 내 몫"이라며 설기현 수석 코치와 의견이 엇갈렸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. '레전드리그' 후반부를 진입한 가운데,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한 'FC슈팅스타'. 와해된 분위기 속 남은 세 경기를 통해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.

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되며, 쿠팡 와우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